

1992 IO
성도의 빛

발인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IO 1992



— 표지 설명 —

“사리아 카르후넨은 “발트해의 등불”인 핀란드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4,000명이 넘는 말일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다. (8·12쪽 참조)
표지촬영, 리처드 엠

— 어린이란 표지 —

샌디 게이건 그림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2
수오미 핀란드 : 발트해의 등불 아이얼즈 에이치 플로렌스 2세	12
결심의 힘 엠 러셀 벨라드	20
“그 책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러린 간트	26
황근옥 자매 : 한국의 어린이들을 돌봄 셔린 믹 샌더즈	32
이해의 교훈 과다루페 온티베로스 얼티스	48

청 소 년 란

노래를 들으라 리처드 엠 롬니	8
조 폴컷 장로 : 영국에서 복음의 빛을 나눔 앤 시 브렛샤	42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사랑의 봉사의 열매를 함께 나눔	25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셸케이 시마부꾸로 장로	65
교회 및 지역 소식	66

어 린 이 란

물문경 이야기 : 애플리싸이인	50
원 놀이 낸시 하딩 그로우브즈	52
여러분은 선교사업을 할 수 있어요 가이 핏제랄드	54
그림 색칠하기	57
함께 나누는 시간 : 거룩한 곳에서 경건함 버지니아 피어스	58
앤디와 우산 조이스 피즈	60
경건 엘 롬 페리	64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틴, 리차드 지 스크트

고문 : 맥스 디 피네가, 찰스 디데이,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19권, 제29권, 제10호

등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92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앙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 / 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 1992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2990 320

Printed in Korea 10/92

봉사의 기쁨

병원 자원 봉사자 협회 회원으로서 저는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로부터 봉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 협회의 자원 봉사자들은 병원의 환자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줍니다.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서 저 혼자만 학교에서 말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

저는 이것이 참으로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협회의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영감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서, 저는 주님이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누가복음 10 : 30~37)를 전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

저는 또한 이에 관한 좀더 최근의 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라 스텔라 (이탈리아어 판)를 다시 읽어 보다가 저는 엘 톰 페리 장로님이 쓰신 맹인에게 스키를 가르치기 위해 시간을 바친 어떤 젊은이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이 주신 대관장단 메시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말씀을 하는 날, 저는 600명에 달하는 학생들 앞에 섰습니. 저는 너무 긴장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필요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웃을 돕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에 대하여 15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의 추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하고 복음 선교사들이 베풀고 있는 봉사에 관해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열심히 경청했으며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일부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파브리시오 지아넬리
라 스페지아, 이탈리아

힘을 얻을

저는 실망과 낙담에 빠져 있을 때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의 기사들을 읽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리아호나가 많은 언어로 번역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나이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신성한 사업에 대한 강한 간증을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레오넬 아코스타
도미니카 공화국, 산디아고

[편집 노트 : 교회 잡지는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및 남태평양에서 20개 언어로 발행됩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는 교회에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이라는
 감명깊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만든
 찬송가를 우리 교회에서 부르기도 하고 또한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가
 만든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라는 내용의 찬송을 합당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뿐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백년 전 영국 셰필드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작사한 것입니다. 그는 강철 제련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몰몬 교회에 입교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는 크고 강렬한 간증이 불타 올랐으며,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펜을 들어 이 감동적인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후 이 찬송가는 온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주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해 감사드리는 경건한 기도로서
 수많은 언어로 불려지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왼쪽)은
 하나님에 의해 예언자라는
 고귀하고 신성한 부름을 받은,
 요셉 스미스의 합법적인
 계승자이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슴에 지니고 있는 굳건한 확신,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중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신다는 강한 확신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진정한 근간이 됩니다. 예언자가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예언자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저는 홍콩 출신의 선교부장과 함께 선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간 적이 있습니다. 1961년 4월 28일, 우리는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결코 잊지 못할 특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는 모임을 가질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닐라 근교의 포트 맥킨리라고 하는 미국 군인 묘지에 세워진 아름다운 대리석 기념관 현관에서 모임을 갖게 해달라고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전 6시 30분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연상케 하는 거룩하고도 엄숙한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필리핀 원주민

회원을 방문하였는데, 제가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형제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그는 쓰레기통에서 낚고 오래된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 권을 발견하였는데 그 책에는 물론인들에 관한 내용의 단편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글에는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었으며 그를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라는 단어를 본 순간 이 소년은 이 세상에 정말로 예언자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후 소년은 그 잡지를 잃어버렸으나 살아 있는 예언자의 존재에 대한 상념은 필리핀이 점령된 동안의 그 어두운 전쟁과 억압의 시기에도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군대가 들어왔으며, 클라크 공군 기지도

.....
 벤슨 대관장은 성도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신다. (왼쪽).
 그분께서 연차 대회 참석자들을 힘차고 다정스럽게
 맞이하시는 광경에서 그분의 삶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오른쪽)

최치 뉴스 제공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라그만은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군장교인 그의 감독관이 몰몬이었습니다. 그는 장교에게 진실로 예언자를 믿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그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장교님은 몰몬이십니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교는 서슴 없이 대답했습니다.

“장교님은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그 교회에는 예언자가 있습니까?” 알고 싶었던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시서, 예언자께서 교회를 관리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데이비드는 장교에게 좀더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그렇게 하여 교회에 관해서 알게 된 그는 결국 침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필리핀 원주민으로서 최초로 장로로 성임되었습니다.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가르쳐 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소멸되고, 분별력이 있는 자의 이해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세상을 멀리까지 내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76:9 참조) 세상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아모스 3:7)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성신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야기한 때는 비단 아모스 시대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그러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21 참조) 고대 예언자들은 앞으로 있을 일을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 주는 계시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기독교인 청년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접했으나 현대의 예언자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 중에서 예언자에 대하여 경건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그 종교를 받아들여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1964년 여름 그는 뉴욕을 여행하던 중 세계 박람회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몬관에 들어가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그림을 보았으며 선교사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뜻을 보이실 때 도구로 사용하신 과거의 위대한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몰몬관을 좀더 구경하다가 그는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불리우는 요셉 스미스라는 현대의 예언자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영이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침례를 받고 남미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뒤에는 그의 가족과 이웃 사람들을 교회에 입교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진실로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를 계승한 모든 예언자는 이 높고 성스러운 무릎을 받아들이는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간증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 중에 요셉 스미스가 앞으로 올 사건을 말하는 위대한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총성이 들리기 거의 30년 전에 그는 미국내의 비극적인 남북 전쟁에 대하여 예언하였으며 그후에 전쟁이 온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현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의 계승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1849년 추운 겨울날,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이 발견되었으나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우리의 조상들은 굶주려 나리꽃 뿌리와 엉겅퀴로 연명해야 했을 때,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텀플 스퀘어에 있던 낡은 노천 정자에서 서서 고생스러운 이곳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캘리포니아의 푸른 초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그때에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마치 기름 가마솥에서 빠져나와 불속에 빠지고 또 불속을 빠져나와 홍수의 한 가운데 빠져버린 것처럼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정착할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도시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정착지를 늘리게 될 것이며, 수많은 도시와 마을을 건설할 것이며,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성도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각국으로 뻗는 대로가 될 것이며 왕과 황제와 귀족과 학식있는 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제임스 에스 브라운, *개혁자의 생애: 제임스 에스 브라운 자서전*, 솔트레이크시티, 조지 큐 캐넌 앤드 선스 출판사, 1990년, 121~122쪽에서 인용함)

오늘날 템플 스퀘어에 서서 매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보고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예언자로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대관장이요 오늘날의 예언자로 지지하는 분을 만나기 위하여 대관장단 사무실을 찾는 유명인들의 행렬이 수년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부의 지도자, 사업, 상업, 교육, 전문직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황폐한 산중으로 쫓겨나왔을 때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예언하신 “현명한 자와 귀족”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호주의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이 *미국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회가 기회인 만큼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도 그 책을 읽었으며, 또한 그 책의 저자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어떤 내용에 관심이 끌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던 중 그는 자기가 예언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에도 예언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를 사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 책을 발견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으며 저는 요셉 스미스가 참으로 예언자라고 간증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 주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사업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도구로 쓰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 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를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다듬으셨으며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높은 산에서 굴러 내리는 커다란 거친 바위와도 같습니다. ...저의 이 모서리 저 모서리를 깨뜨려 둥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통에

꽃힌 부드럽게 잘 다듬어진 화살이 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87쪽)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에게서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전기를 읽어 보면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발전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 점차로 힘을 키워갔고 세련되어 갔으며 점차로 자신보다는 남에 대한 사랑이 커졌습니다. 울퉁불퉁했던 모서리가 사라지고 전능자의 손에 들린 매끈한 화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계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헌신하여 봉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듬어지고, 체로 쳐지고, 세련되어졌습니다. 브리감 영, 윌포드 우드럽, 조셉 에프 스미스 등과 같은 사람의 전기를 읽은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부여할 크고도 성스러운 책임을 이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성품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현대의 교회 대관장이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의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벤슨 대관장님이 실로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온 세계의 성도들이 외치는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라는 소리에 저의 소리를 더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종이시며 교회의 대관장이신 그분을 통하여 펴보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활할 때 화평과 발전과 번성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스러운 부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고를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시온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권고를 하셨습니까?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찾아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이며, 그들을 재활동화시키라고 권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없애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하라고 권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몬경의 권세와 그 영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생활에 반영하고, 물몬경이 특별히 말일에 주님의 사업을 위해 주님의 지시하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고 권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을 구하라고 권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절망을 피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권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교만이라는 커다란 걸림돌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필요하다면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 와야 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권고를 여러 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 시대에 여호사밧이 한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역대하 20 : 20)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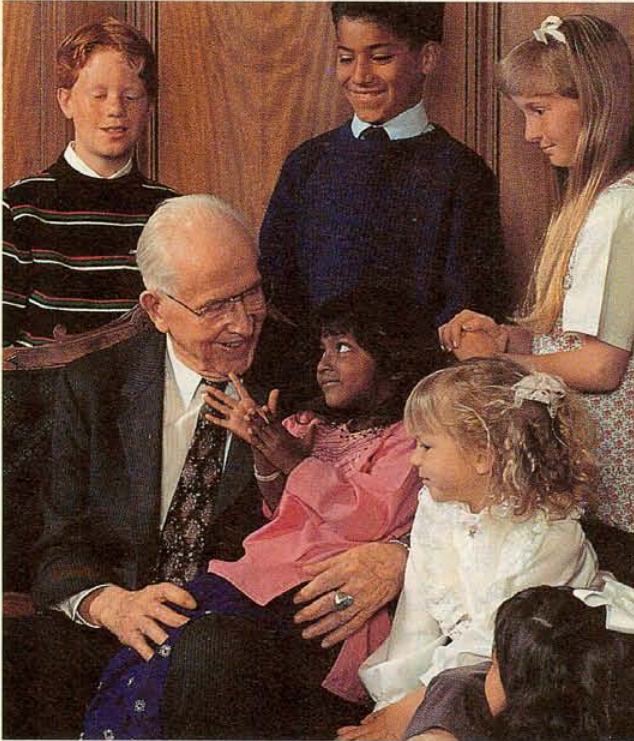
예언자로 부름받았을 때, 벤슨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벤슨 대관장은 여기를 보낼 때면 카우보이 모자를 즐겨 쓰신다. (오른쪽)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견자요 계시자인 예언자를 이 지상에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며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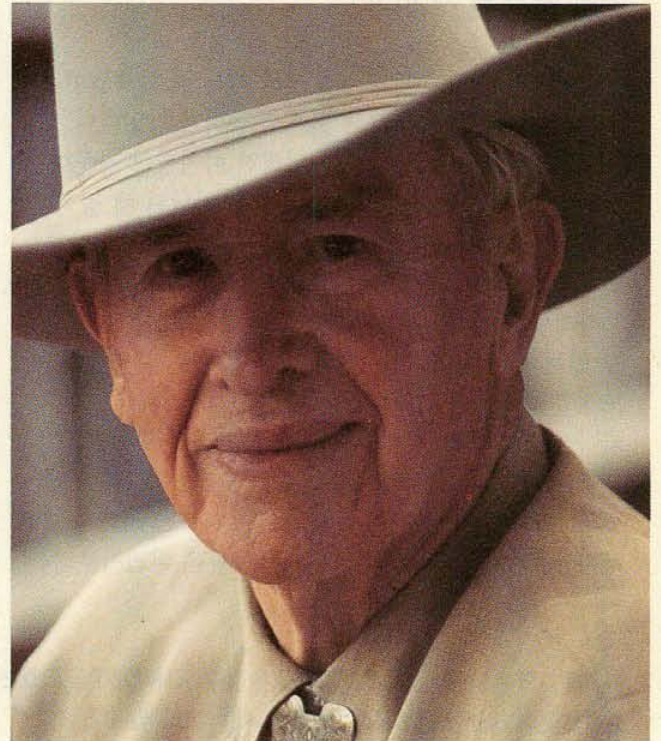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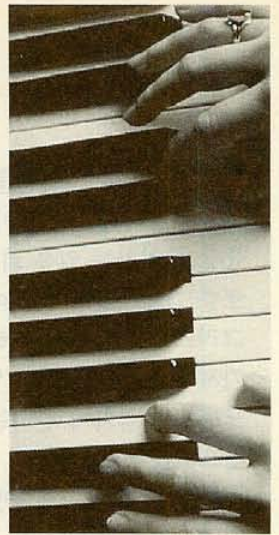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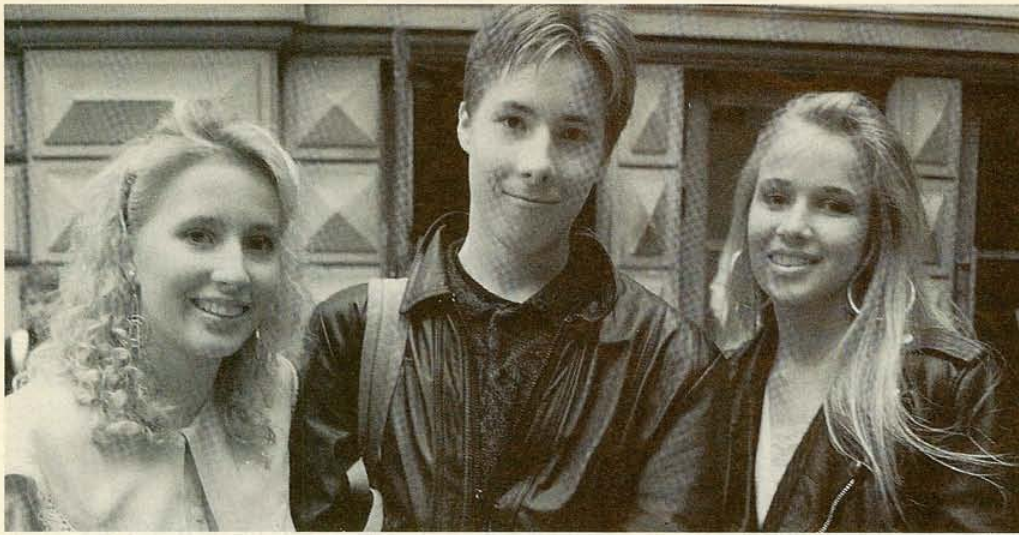
1.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사라지고 분별력이 있는 자의 이해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먼 곳을 내다볼 필요가 없다.
2. 우리의 신앙과 활동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3. 우리는 이 사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였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포함하여 요셉의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
4. 이 백성의 평화와 발전은 교회의 대관장을 통하여 계시되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

필드 앤더슨 사진 촬영



제드 폴리크 사진 촬영





노래를 들으라

리차드 엠 롬니

사데가 노래를 연주할 때, 가슴으로 들어보면, 그것이 단순한 음악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핀란드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어느 반 학생들이 깔깔대고 재잘거리며 다른 반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자리에 금박이 입혀진 아치형의 창문이 있는 연습실에는 그러한 소음이 모두 차단된 채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열 다섯 살된 사데 멧사타티가 피아노 연주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곳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사데는 고전 음악이나 대중 음악 어느쪽이라도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았지만, 지금은 꼭 한 곡만을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데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였다. 매우 단순한 곡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외우기가 쉬운 노래였다. 열 여섯 살의 사리아 카르후넨이 후렴 부분에서부터 사데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사데와 그의 동생 베사,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인 사리아가 듣고 있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그 노래는 신앙과 사랑의 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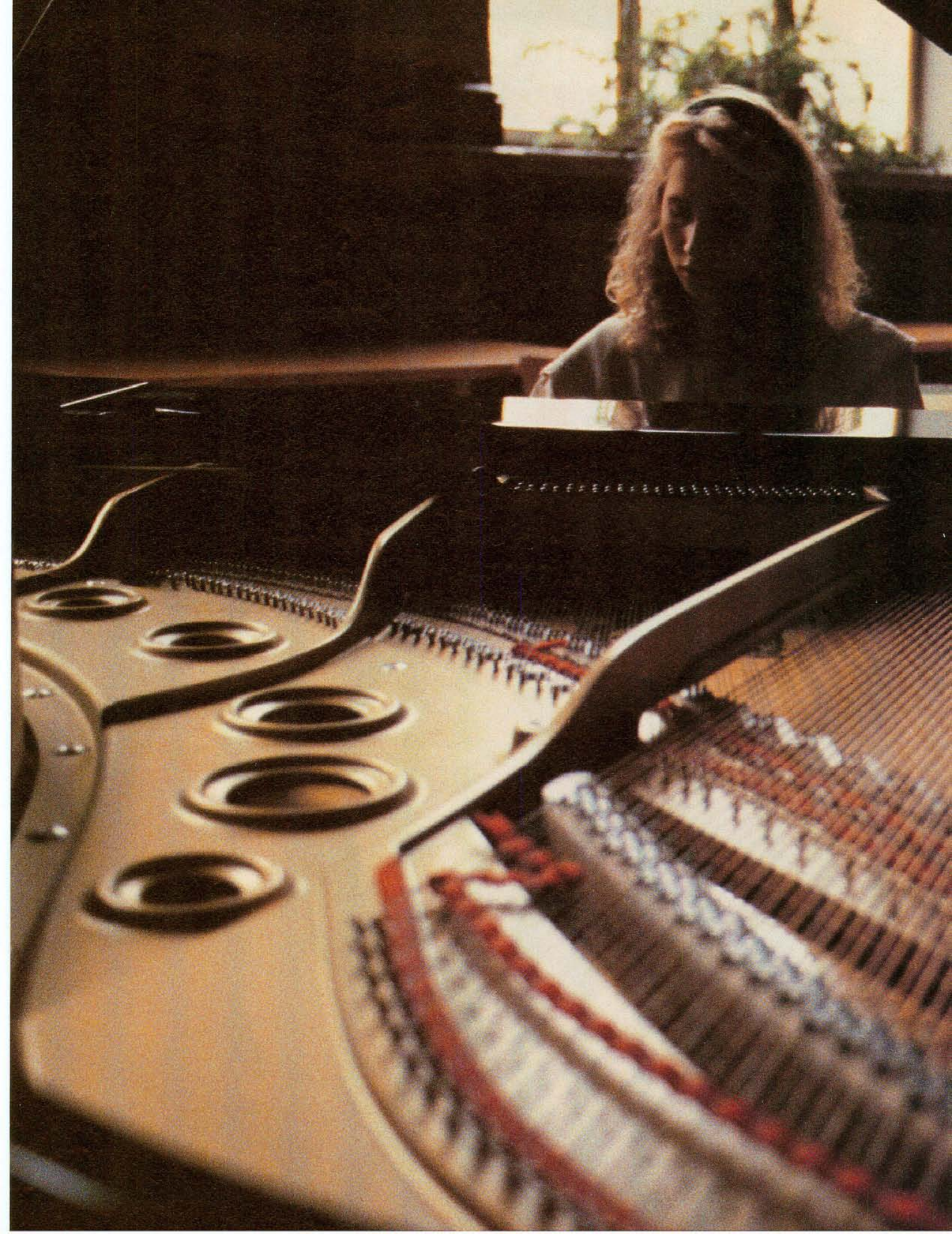
친구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 두 사람의 목소리는 화음이 잘 맞아서 노래에 힘이 있었으며, 그것으로 그들이 지닌 우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노래가 끝난 뒤, 사리아는 “이 노래를 부르면 꼭 기도문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사데는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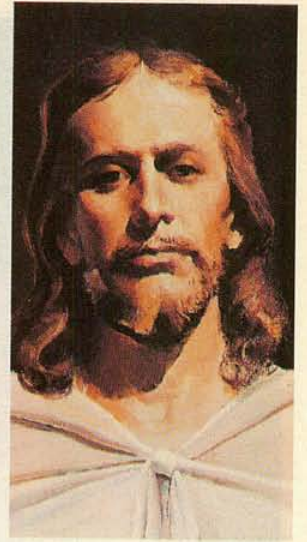
이 노래는 말일성도 회원이 작사를 했는데, 영어 제목은 “안을 바라보라”이지만, 사데의 어머니 비르피는 핀란드어로 번역하면서 그 의미를 좀더 강하게 표현하여 “수다메스 쿤 캣소트”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뜻은 “네 마음을 바라볼 때”이다.

“물론 이 노래를 다른 사람들이 작사하고 작곡하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노래를 연주할 때마다 마치 제 노래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람들은 물론 사물들까지 모두 자신의 노래를 가지고 있어, 주의깊게 귀기울여 들어보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사데는 말한다.

두번째 종이 울렸다. 그것은 곧 짧은 연주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데와 사리아는 음악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푸올라란마엔 코오루에서 매우 엄격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음악 공부 외에도 사데는







학교 어학실에 있든, 꽃 속에 있든, 아니면 우정 속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사물에서 구세주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사데는 말한다.

스웨덴어와 수학, 핀란드어, 체육, 영어, 생물학, 지질학 그리고 프랑스어 수업도 듣고 있다.

또한 사데와 사리아는 매일 세미나리를 공부하며, 일 주일에 한번씩 와드에서 다른 세미나리 학생들과 만난다.

그날 밤에는 활동실에서 활동의 밤 모임이 열렸으며 그밖에 세미나리 학생과 신학 연구원 대학부 학생, 소년단원, 가족 역사 봉사자, 그리고 다른 와드의 회원들도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모임을 가졌으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 자매였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나요?”라고 세미나리 교사인 아를리 하이크콜라 자매가 물었다.

아키 케스키넨이 “경전을 공부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토드 카츠케는 “기도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유카 메렌루오토는 “가족과 함께 구세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했다.

요니 미코넨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풁니다.”라고 대답했다.

수업이 끝난 후에 여러 명의 세미나리 학생들이 자리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와 경전 공부를 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 그리고 기도, 가족, 신권, 영, 그밖에

젊은이들이 교회 전반에 걸쳐 흔히 지니고 있는 다른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핀란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 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교회에 갑니다. 이들은 종교가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라고 마리아 소콜리는 말한다.

헤이디 한키알라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 회원이 아닌 제 친구들이 저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술을 마시고 제가 하고싶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에는 저도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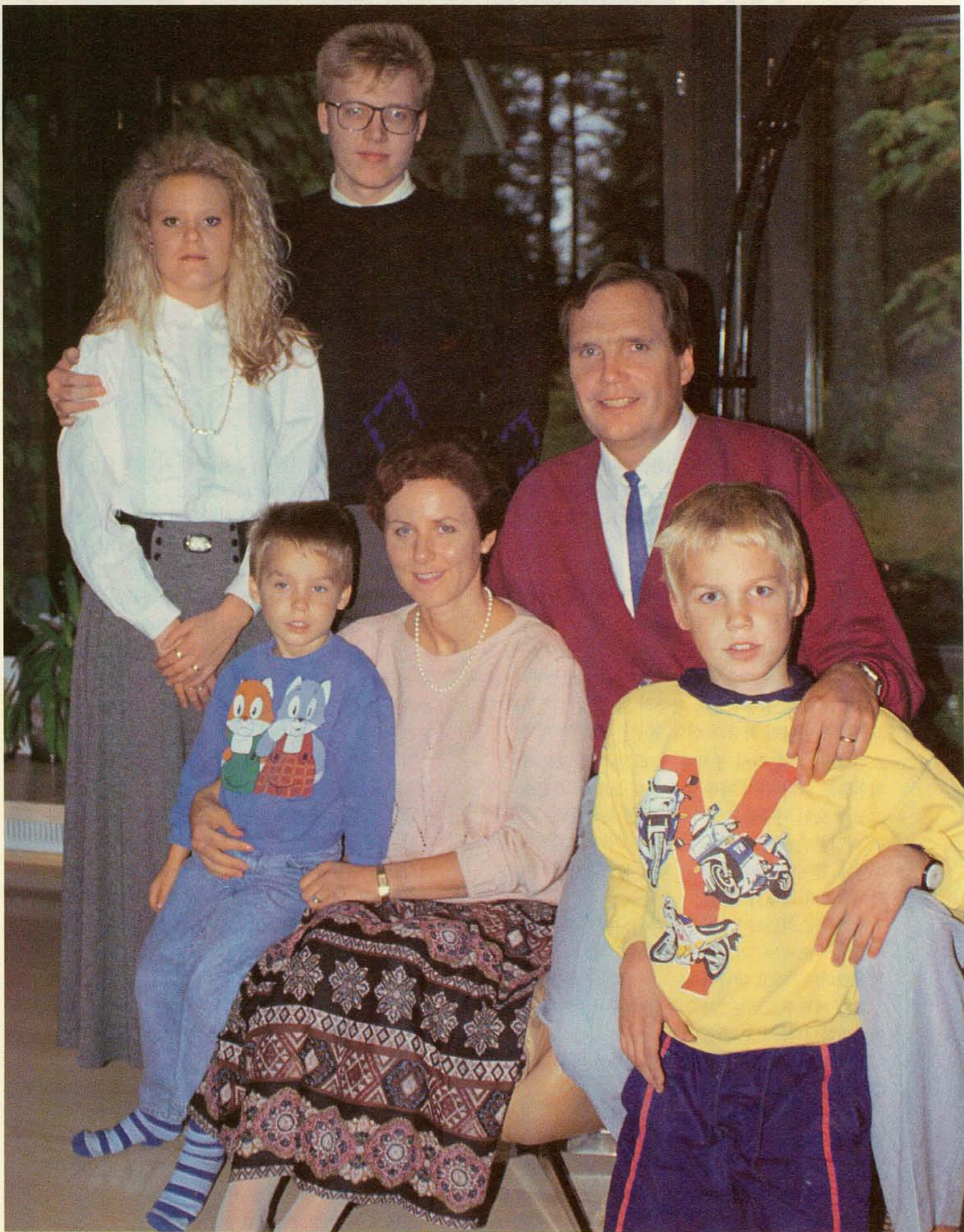
“마리아와 헤이디, 사리아, 그리고 저는 모두 교회에서 성장하였습니다.”라고 사데는 말한다. “우리 와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복음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저는 핀란드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동유럽, 아니 전세계에서 교회에 가입하는 젊은이들이 더욱 많아지고, 교회가 더욱더 빨리 성장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미래의 희망이며, 젊은이들은 교회의 희망입니다.”

곧 그들의 대화는 끝이 났다.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는 이내 자리를 떠나갔다. 세미나리 교실은 텅 비게 되었으며, 교회 건물도 대부분이 비었다.

그때 다시 노래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사데는 피아노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학교 연습실에 있는 것처럼 검은 광택이 나는 우아하고 큰 피아노는 아니었다. 건반이 한 두개 깨진 허름한 갈색 피아노였지만, 사데가 “네 마음을 바라볼 때”를 연주하는 멜로디는 변함이 없었다.

신앙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었다. □



수오미

핀란드

발트해의 등불



아이얼즈 에이치 플로렌스 이세

“하나님은 지구 창조를 끝마치고 나서, 남은 나무

씨앗을 모두 바로 여기 수오미에 떨어뜨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수오미는 핀란드를 지칭하는 말로서 거친 땅이라는 뜻이다. 북극에 가까운 램란드에서부터 남쪽의 발트해에 이르기까지, 핀란드의 전국토는 커다란 소나무와 가문비나무와 자작나무들이 뺨뺨히 들어서 있다. 나뭇잎이 너무 울창해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땅 전체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녹색의 거대한 이끼군 같이 보이기도 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특성을 시수(Sisu)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왕성하고, 굳건하며, 담대하여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핀란드 사람들이 결코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헬싱키에 사는 세이야 린나넨과 베사 린나넨은 복음이 그들의 네 자녀들을 인도하여 진리를 배우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독특한 특성일 것이다. 지난 이백년 동안 핀란드 사람들은 러시아의 대군을 여러 번 물리쳤다. 그리고 비록 1940년에 그들 국토의 십분의 일이나 되는 동카렐리아의 훌륭한 산림 지대를 소련에게 잃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은 독립을 지키고, 자유의 등불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일단 개종을 하기만 하면, 시수와 신앙이 결합하여 정말로 헌신적인 교회 회원이 된다. 그리고 비록 이곳에서의 교회 성장이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빠른 편은 아니지만, 새로운 회원이 침례받고 우정이 증진되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이들의 유대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낯설지 않은 소리

마티 살미와 키르스티 살미는 핀란드 사람들이 지닌 결의와 신앙이 잘 결합된 전형적인 예이다. 그들은 보스니아 만의 북단에 있는 서해안 도시인 케미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는 북극권에서 불과 백 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1988년에 살미 부부는

자국인으로서의 첫번째 부부 선교사가 되었다.

키르스티는 선교사들로부터 “어색하지 않고 참되게 들리는 복음을, 그것도 몰몬경을 읽은 후에는 그러한 느낌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복음을 배운 뒤 1973년에 쿠오피오에서 교회에 가입했다. 또한 마티는 1938년 장로들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영”을 느끼게 되어 사십 팔세의 나이로 침례를 받았다. 그 두 사람은 1981년 스위스 성전에서 만났다.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부름받아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라고 마티는 말한다.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일 주일 만에 우리는 후일 우리의 첫번째 개종자가 된 사람들을 만나 가르쳤습니다. 그분들은 두달 만에 침례를 받았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이 침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 가르침이 헛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분들 중 많은 수가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키르스티가 덧붙인다.



에프 피 지 인터내셔널 제공



위 : 핀란드 호수 지방의 전경.

아래 : 핀란드 헬싱키 동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하리 아호 장로(왼쪽)와 미국 출신의 동반자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국가에서 매년 주최하는 오페라 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도시 사본리나에 사는 세 젊은이가 개종하게 되었다. 이 도시는 마치 드라마의 배경과도 같이 핀란드에 있는 180,000개의 호수 중에서 가장 큰 호수의 가운데 있는 큰 섬에 위치하고 있다. “저희는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기쁘게 봉사했습니다.”라고 살미 형제는 말한다. “이곳의 회원들은 복음에 헌신적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까이 저희를 도와 주었습니다.”

살미 부부의 말에 따르면 “함께 영원한 원리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과정을 통해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뜻깊은 결혼 생활이 되었으며, 저희 부부 사이는 더욱 가깝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

사랑을 나눔

핀란드 사람들은 대부분 핀란드어를 사용하지만, 스웨덴 사람과도 공통점이 많다. 그리고 남부 해안 도시와 서부 해안 도시에는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따라서 도로 표지판과 공식 인쇄물은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공식 명칭인 수오멘 타사발타는 주로 수오미 핀란드로 표기된다.

“국민들이 함께 나누고 서로 교류하는 성향이 있어 핀란드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은 곳입니다.”라고 핀란드 탐페르 스테이크 부장인 테카 로토 부장은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로 핀란드에는 오랫동안 정착해 온 국교가 있어서 비록 그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교회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다소 역설적이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의 높은 생활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핀란드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들만한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핀란드 정부가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여 주고 있어 사람들이 희생을 하려는 마음이 없는 반면에 요셉 스미스는 희생이 우리 종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신권 지도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 잘 준비되어 있으며, 기쁘게 그 일을 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낯동안에 일할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라고 셉포 포스만 핀란드 헬싱키 스테이크의 스테이크부장은 이야기한다. 1976년에 핀란드에 스테이크가 조직될 당시 2년 동안은 교회가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더니 1988년까지는 다시 완만한 성장을 보였다. 지금은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개종자와 우정 증진을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새로운 회원이 활동 회원으로 남는 비율이 75퍼센트 정도 되고 있다.

1990년에는 핀란드에서 120명의 선교사가 봉사하는 가운데 125명을 교회에 가입시켜서 핀란드 회원이 4,2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현재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남부 지방에 2개의 스테이크와 11개의 와드와 19개의 지부가 있으며, 세 개의 지방부가 있다.

선교 사업을 행하는 젊은이들

탐페르 스테이크에서는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른 젊은이의 반 이상이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두 스테이크에 있는 청소년들은 신앙이 매우 강하며, 또한 선교 사업을 잘 준비하고 있다. 청남과 청녀 가운데, 70퍼센트 이상이 활동적이며, 이 가운데



핀란드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첫번째 부부 선교사인 키르스티 살미와 마티 살미(오른쪽)가 1987~1990년에 핀란드 헬싱키 선교부를 관리하였던 스티븐 미컴 형제와 도나 미컴 자매 부부를 방문하고 있다.

80퍼센트 이상이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다.

핀란드에 살고 있는 말일성도 부모들은 대부분 교육열이 매우 높으며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더우기 복음의 표준에 맞춰사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갖게끔 하고 있다. “이같은 유리한 점들

덕분에 우리의 청소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싶어합니다.”라고 로토 스테이크 부장의 부인인 안나 카리나 자매는 말한다. 이들의 자녀인 마티와 리사와 카이사는 모두 학교에서 학생회 간부로 있으며,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다. 리사는 유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마티는 자연 환경 보존에 관한 논문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목을 받음

핀란드에서는 가구당 평균

자녀수가 1.8명이지만 생활비가 많이 들어 대부분의 어머니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다. 타파니 프리스트롬과 시니카 프리스트의 가정처럼 평균 열한 가구당 한 가구가 갈수록 가중되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프리스트롬 가족은 그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집착력이 남들보다 강하지 않은 부부에게 있어서 시니카가 국내 굴지의 제약 회사를 위해 연구를 하면 많은 보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 이를 수락하거나, 또는 그녀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헬싱키 대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당연할 법도 한데, 그 대신에 시니카는



헬싱키에서 자녀들인(왼쪽부터) 유루, 옷소, 필비, 툴리, 푸루, 쿠카, 메리, 그리고 비사와 함께 한 시니카 프리스트롬과 타파니 프리스트롬. 다른 자녀인 수비는 이곳에 있지 않다.
오른쪽: 11살의 유하 린나넨

자신의 인생에서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녀는 와드에서 오르간 연주자와 초등학교 피아노 연주자로 봉사하고 있으며, 타파니는 스테이크 고등학교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대가족을 이룬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종종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자르코 베르사타티와 그의 아내 비르피가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히 받는 질문은 “가난해지면 그 많은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지요?”라는 것이다. 자르코와 비르피는 자신들이 진실로 부유하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일곱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메트사타티 가족은 남서 해안 도시인 투르크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는 1812년까지만 해도 핀란드의 수도였다. 그들이 손수 지은 집 주위에는 커다랗고 오래된 사과 나무가 수십 그루 있다. 자르코는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저희 가족이 저희의 삶 그 자체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아내와 저에게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는 없습니다.”
메트사타티 부부는 아들 넷, 딸 셋을 두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음악과 미술에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 그 중 딸 사데가 가장 두드러진다. 사데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노래도 하며, 자기의 옷을 꿰매기도 하며, 또한 영어도 공부하고 있다. (“노래를 들으라”, 8쪽 참조)

대학에서 과학을 전공한 가정 주부인 비르피는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비르피는 스테이크 음악회를 조직하였으며, 많은 말일성도 찬송가를 핀란드어로 번역하였다.

자르코는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하였다. 그러나 교회에서 삼십 년을 봉사한 뒤에, 그는 자신이 “받았던 가장 중요한 부름 중의 하나인 소년단 대장의 부름을 통하여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갖게” 되었다. 그가 이끄는 소년단은 오십 명 이상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들은 루마니아의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대가족 뿐만 아니라 보다 작은 가족이라도 교회의 가족들은 주위로 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열 한살된 유하 린나넨의 학교 선생님은 유하의 부모님에게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 칭찬을 듣고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라고 헬싱키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지도자이자 네 살부터 스물 한 살에 이르는 네 자녀를 둔 어머니인 세이야 린나넨 자매는 말한다.

주방 가구 사업에 종사하는 그녀의 남편 베사는 이렇게 덧붙인다. “저는 복음을 통해 제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그저 자신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를 배움으로써 저는 저에게 자녀들이 진리를 배우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이야와 저는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주님의 모든 지혜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우리의 성도들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똑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들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라고 가족과 함께 에스프 워드에 살고 있는 사업가인 페르티 보리모 형제는 말한다. “그러나 저는 우리 회원들 가운데 있는 다양성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를 이처럼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양성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아리아 릴야는 자신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와 직업 화가인 남편 카리는 헬싱키 근교에 살고 있다.

있습니다.”

핀란드 회원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 개개인이 봉사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희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보는 것이다.

헬싱키 제3와드 회원인 한누 소르사에게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의 희생이었다. “저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연주와 연습, 작곡,

편곡 그 모든 것을 매우 사랑합니다. 매일 음악에 전념하던 일을 뒤로 하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가는 것은 하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감으로써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28세인 하누는 지금 핀란드에서 최고 명문 음악 대학인 시벨리우스 음악원에서 음악 교육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이름은 핀란드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작곡가인 잔 시벨리우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한누는 피아노와 색소폰, 클라리넷, 그리고 그밖에 다양한 타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한누는 스테이크 모임의 음악 순서에서 항상 음악을 인도하고, 지도하며, 또한 반주를

합니다.”라고 그와 함께 노래한 적이 있는 리나 몰타마키는 말한다.

리나는 사본리나 출신인데, 리나의 아버지는 그 지방에서 쿠오피오 지방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리나는 현재 헬싱키 교회 번역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 교회 회원들이 보여 주는 선행은 작은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리나는 말한다.

“우리는 숫적으로는 적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람들입니다.”

핀란드 독신 회원들은 복음을 통해 사랑의 힘을 키우고 있다고 헬싱키 스테이크의 독신 성인 지도자인 미르야 수온과 자매는 말한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사람들과

이웃 사랑

이곳에서 행해지는 활동과 가르침들이 저의 생활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입한 이후부터 너무나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사물을 대하는 저의 시각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일어난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라고 수온파는 말한다. “새로운 것들이 저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전에는 저를 괴롭혔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로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복음으로부터 분별력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는 더욱 큰 위안을 얻었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때보다 더욱 큰 인내심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

핀란드 전역에서 회원들은 그들이 지닌 따뜻한 영을 그 차가운 핀란드 만 저 너머와 동쪽의 카렐리아에 있는 이웃인 러시아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종교에 대한 정치적인 장벽이 제거된 후에, 많은 핀란드 사람들이 소련 영토에서 복음을 나누고 있다.

라페란타의 야쿠 부부와 오울루의 라이티넨 부부, 유바스클레의 라멘도우스 부부, 라호티의 키르시스 부부, 그리고 헬싱키의 켈파이넨 부부 등은 1989년 이래 일요일마다 격주로 소련의 말일성도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일해 왔다. 처음에 그들은 간증과 구세주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었다. 그러다가 회원들의 수가 많아지자, 이들

충실한 핀란드인들은 비보르그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탈린의 새로운 회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고 훈련시켜, 회원들이 스스로 예배를 보고, 신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7년에 카리 하이콜라 형제가 핀란드의 첫번째 스테이크를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후로 우리는 러시아에 복음이 전해질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 러시아 백성들이 수년 동안 기도하고 신앙을 인내있게 보여준 끝에 주님께서 보내 주신 축복입니다.”라고 발트 지방부장인 유시 켈파이넨 형제는 말한다.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 왔습니다.”라고 1987년에 핀란드 헬싱키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았던 유타주 옥든 출신의 스티븐 미검 형제는 말한다.

“소련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마치 우리들을 위해 준비된 어떤 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선교 사업을 도와 주었습니다. 소련 백성들은 주님의 손길에 의해 직접 준비된 백성들입니다.”라고 켈파이넨 지방부장은 말한다.

최초로 핀란드 선교사에 의해 구 소련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부가 여러 도시에 세워지고 세 개의 선교부가 개설되었으며, 핀란드 사람들도 이 사업을 위해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핀란드에 살고 있는 말일성도들은



위 : 헬싱키 스테이크의 독신 성인 지도자인 미르야 수온파 자매.

아래 : 라페란타의 넬리아쿠와 아이모 야쿠 부부는 러시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한 회원들 가운데 하나이다.

신앙과 시수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땅에서 굳건하고 꾸준히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닌 복음의 빛을 국경 너머로 보낼 수 있었다. 핀란드 회원들은 암흑과 절망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신앙이 결국 무관심의 벽을 뚫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정치적인 국경까지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아 왔다.

이러한 방법으로 핀란드 사람들이 지닌 시수는 세계 도처에 있는 말일성도의 신앙과 사랑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

결 심 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오래 살면 살수록,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희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놀라움은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안데스 산맥의 고원 지대에 있는 볼리비아의 라 파즈라는 곳에서 지역 대회를 감리한 적이 있습니다. 라 파즈 지역과 알더플라노 지역에 산재해 있는 조그만 촌락들로부터 회원들이 속속 대회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도자 훈련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스테이크 센터 앞에 서서 그곳에 도착하는 형제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나이가 지긋한 어느 형제님께서 통역을 통해 자신이 라 파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의 웃웃 색깔은 가슴을 중심으로 아래 위가 서로 달랐습니다. 윗 부분은 하얀 색이었으며 아랫 부분은 황토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을 비롯하여 다른 세 명의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여덟 시간 이상을 여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먼 거리를 대부분 걸어왔으며, 가슴까지 와닿는 황토색 강물을 두번이나 건너야 했습니다. 라 파즈로 가는 간선 도로에 와서야, 그들은 트럭을 세워 합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스테이크 센터에 도착하기까지 여덟 시간중 마지막 두 시간만 트럭 짐칸에 타고 왔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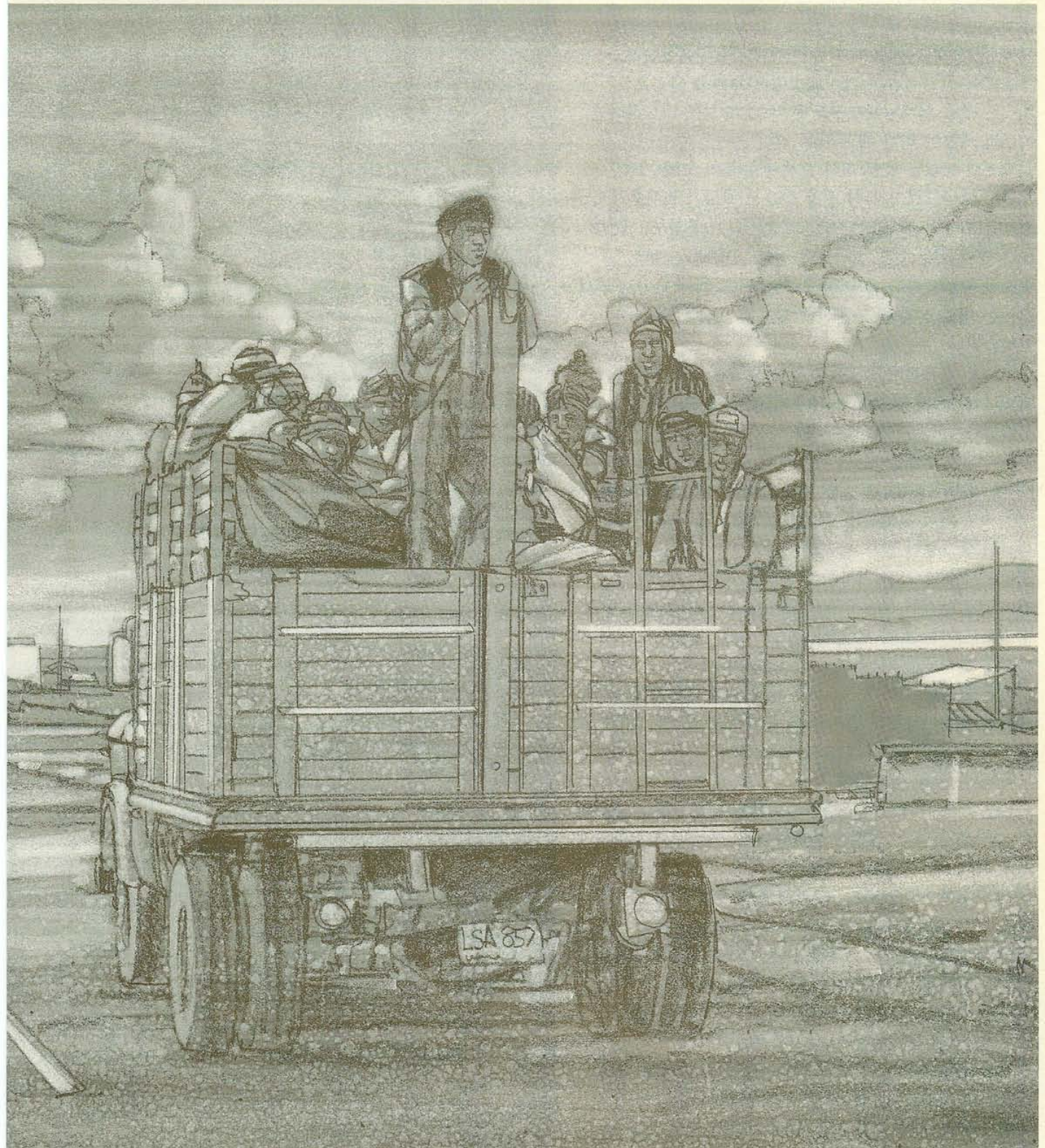
그처럼 강한 결의와 신앙과 용기를 지닌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 훌륭한

충실한 회원들은 지역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먼거리를 여행함으로써 그들의 결심과 용기를 보여 주었다.



힘

힘은 무엇인가? 힘은 무엇인가? 힘은 무엇인가?
힘은 무엇인가? 힘은 무엇인가? 힘은 무엇인가?
힘은 무엇인가? 힘은 무엇인가? 힘은 무엇인가?



시간과 금전, 그리고 거리의 문제를 넘어, 한 페루 자매는 페루 리마 성전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놀라운 헌신을 보여 주었다.

형제님에게 깊은 관심을 표하자, 그 형제님은 “벨라드 형제님, 형제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신권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일을 형제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아무리 개울이 많다 해도 모두 건너 걸어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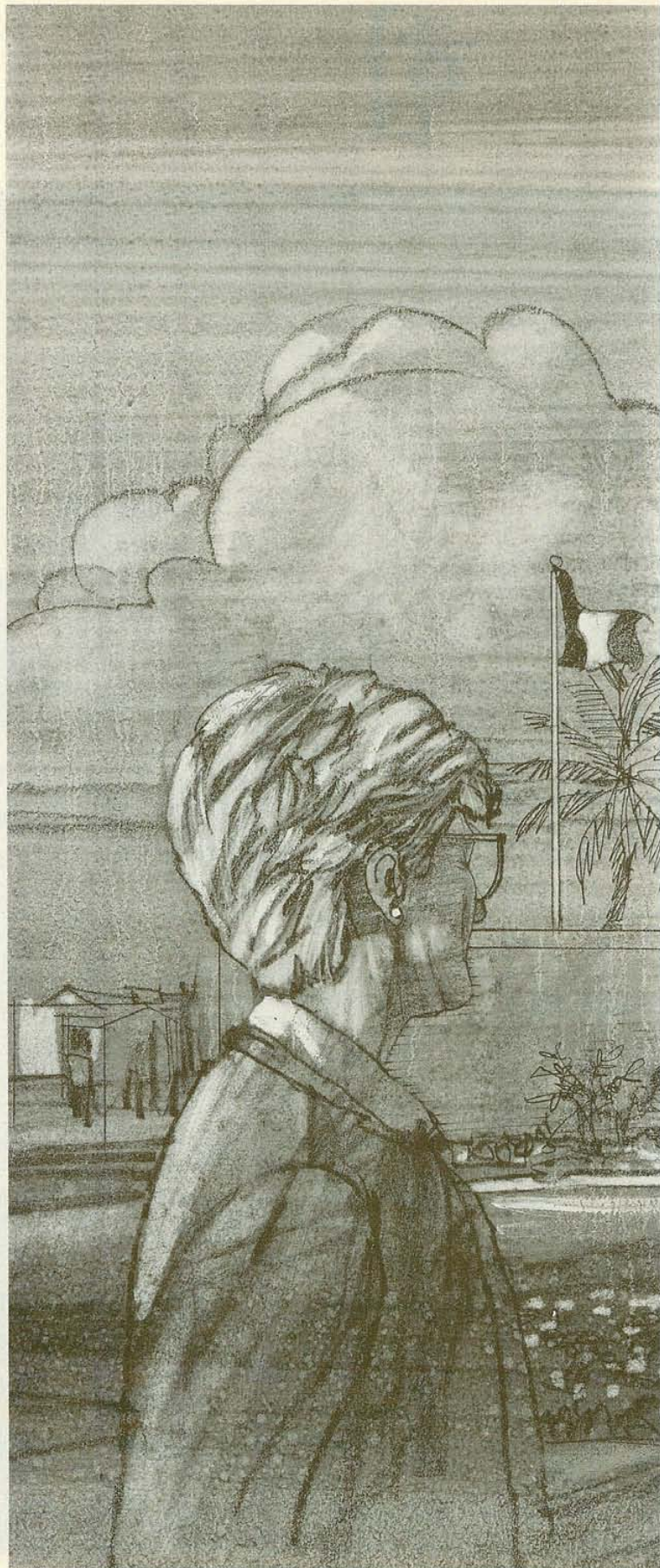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권 안에서 맺어진 형제로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분과 그 일행은 먹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으며 또한 그날 밤을 지낼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 파즈 성도들의 호의로 인해 그들은 대회가 열린 그 주말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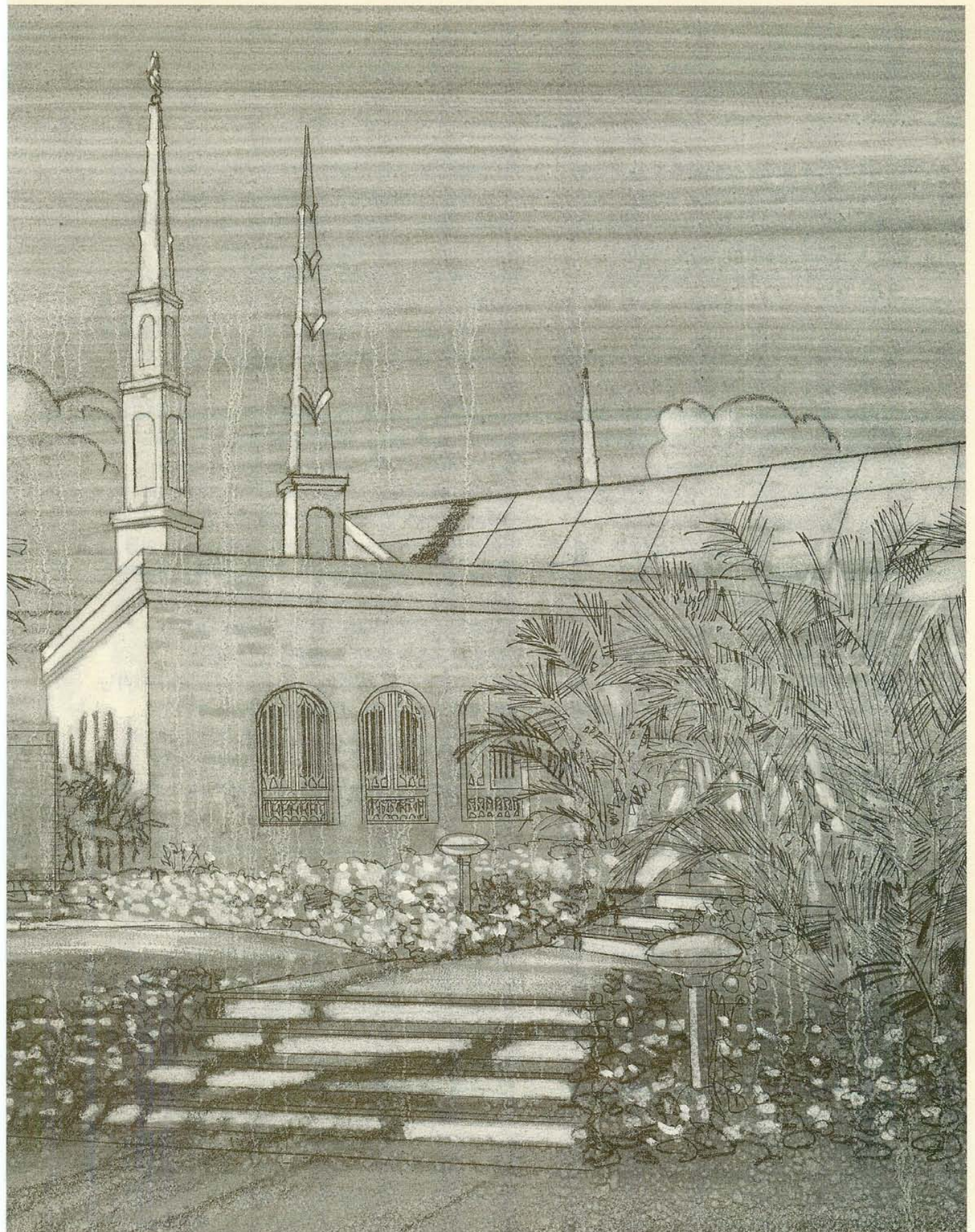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페루에 살고 계시는 한 자매님은 감독님으로부터 리마 성전의 “특별 대리인”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 후로 그 자매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 4시에 성전을 향해 출발하십니다. 집에서 성전까지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며, 버스비가 그분이 받는 월급의 삼분의 일이 넘습니다. 리마에서 버스 운전 기사들이 파업을 하였을 때에도 자매님은 여전히 성전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한번은 성전 방향으로 가는 트럭 뒤에 타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우리만큼 헌신적인 봉사입니까?

최근에 저는 유타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한 훌륭한 젊은이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수영은 저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으며, 저의 가족은 제가 그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말 큰 희생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를 연습장까지 차로 데려다 주시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부모님은 저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시곤 하셨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선수권 결정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지만, 부모님께서서는 항상 제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어 저는 올림픽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저는 애리조나 대학교의 수영 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전국에서 가장 빠른 수영 선수에 속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선교 사업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대학 수영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할 시간이 일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일 선교 사업을 가지 않는다면, 저는 팀의 주장이 되었을 것이며, 또한 모든 학비를 낼 수 있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올림픽 예선 준비를 위해 매일 연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교사 지원서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벌어지는 예선전에 나갔습니다. 저희 팀이 그중 가장 빠른 팀에 속했으며 저희 팀에서 여러 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저는 상황이 좋지 못하여 올림픽 팀에 뽑힐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며, 저의 가족이 제가 달성하는 것을 보려고 먼길을 달려왔던 그 목표가 무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영장으로 뛰어들어 다음 번 올림픽을 위해 다시 훈련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선교사 지원서를 보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만 패자로서 대학 수영팀을 떠난다는 생각에 몹시 괴로웠으며, 코치 또한 내년에는 제가 갱신하고 싶어했던 기록을 갱신할 수 있으며, 만일 제가 선교 사업을 나간다면 제가 살아오면서 이룩해온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 내내 피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방으로 갈라져 있는 기로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이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할 때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을 거스리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선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일을 행하기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물론 선교 사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면 생명을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16 : 25 참조) 저는 어떤 일을 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성공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지만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저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뵈게 될 때 이러한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연습을 하러 갈 것인지 아니면 잠을 더 잘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미리 결정을 내렸으며, 아침이 왔을 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00퍼센트 완전히 결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심을 하도록 자극했던 그런 감정들이 사라진 지 오랜 후에도 우리가 약속했던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쌓고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넘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따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안고 있는 과제는 비교적 변변찮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결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신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안식일 복장을 하고, 여덟 시간을 견고, 강을 건널지라도, 또는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인생에서 추구해 온 목표들을 잠시 제쳐둘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헌신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26절을 보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15~17절)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위해 희생할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그 희생을 치를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요청하시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행할 결심을 이미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편하지 않고 기쁘지 않을 때라도 그러한 결심을 이행할 만큼 충분한 훈련을 쌓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또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자가 요청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주님께 지금 약속드릴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것은 커다란 희생일 수도 있고 작은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 힘을 다해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힘을 지니시기를 기원합니다. □

사랑의 봉사의 열매를 함께 나눔

1992년 올해에 우리는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상호부조회 여성들은 서로에게 봉사함으로써 이 행사를 경축하였습니다. 나부에서의 초기 상호부조회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으려 노력했으며, 그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밀가루 한 포대, 한 조각의 천, 바늘과 실, 일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복지에 대한 관심 등 그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의 여성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레인 엘 잭 자매는 “사랑은 봉사를 하는 것인 동시에 그보다 더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사랑이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인 반면, 사랑을 키우고 실천하는 방법은 각 사람들의 생활이 다양한 것 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안경이 필요한 시각 장애자들을 위해 증고 안경을 거두어 그들에게 기증하는 것이든, 또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창문을 닦고 마루를 닦는 일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실내에서만 지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것이든, 또는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일이든지간에, 우리가 심은 봉사의 씨앗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와드와 지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호주 시드니에 사는 마릴린 조운즈



더그 파클 그림

자매는 봉사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성취하고자 말았습니다. 아들이 신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조운즈 자매는 마을에 재활 센터가 있다면 아들은 물론 신체 장애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 규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원을 호소하며, 정부의 기금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신청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몇 시간 동안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8년 후에, 마릴린과 이웃들은 그들이 기울었던 사랑의 봉사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지역 재활 프로그램이 수백 명의 신체 장애아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씨를 심고 거둘 때와 마찬가지로 봉사에도 불굴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9) 우리는 좋은 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기 전에 심은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돌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 결과로 거두어 들이는 수확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행한 봉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봉사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봉사하는 사람 자신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계획과 불굴의 인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받는가?

..... 계속적인 봉사

엘레인 엘 잭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못하는 데는 많은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 개인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각자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봉사할 때,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 자신도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도를 행하는 자’(야고보서 1:22 참조)로서 항상 사랑의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봉사할 것을 권유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

“그 책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러린 간트

교회 회원들은 물론경에 대한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인생이 혼란스럽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워싱턴 주 앨링턴에 살고 있는 그웬 레글러의 질문이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 늘 걱정했으며 장래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물론경을 읽다가 니파이서 4장 27절에 있는 다음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유혹에 굴하여 악마가 마음으로 들어와 나의 평화를 깨치며, 나의 심령을 아프게 하게 하는고?’ 그 말씀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제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악마의 유혹이었으며 그 때문에 제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구로 저의 처지가 변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제 태도는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회원들이 물론경을 읽으면서 얻은 경험에 관해 적어 보내 준 수많은 편지 중 하나이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를 뽑은 것이다.

“저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덴빌에 거주하는 조디 버의 말이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속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었지만 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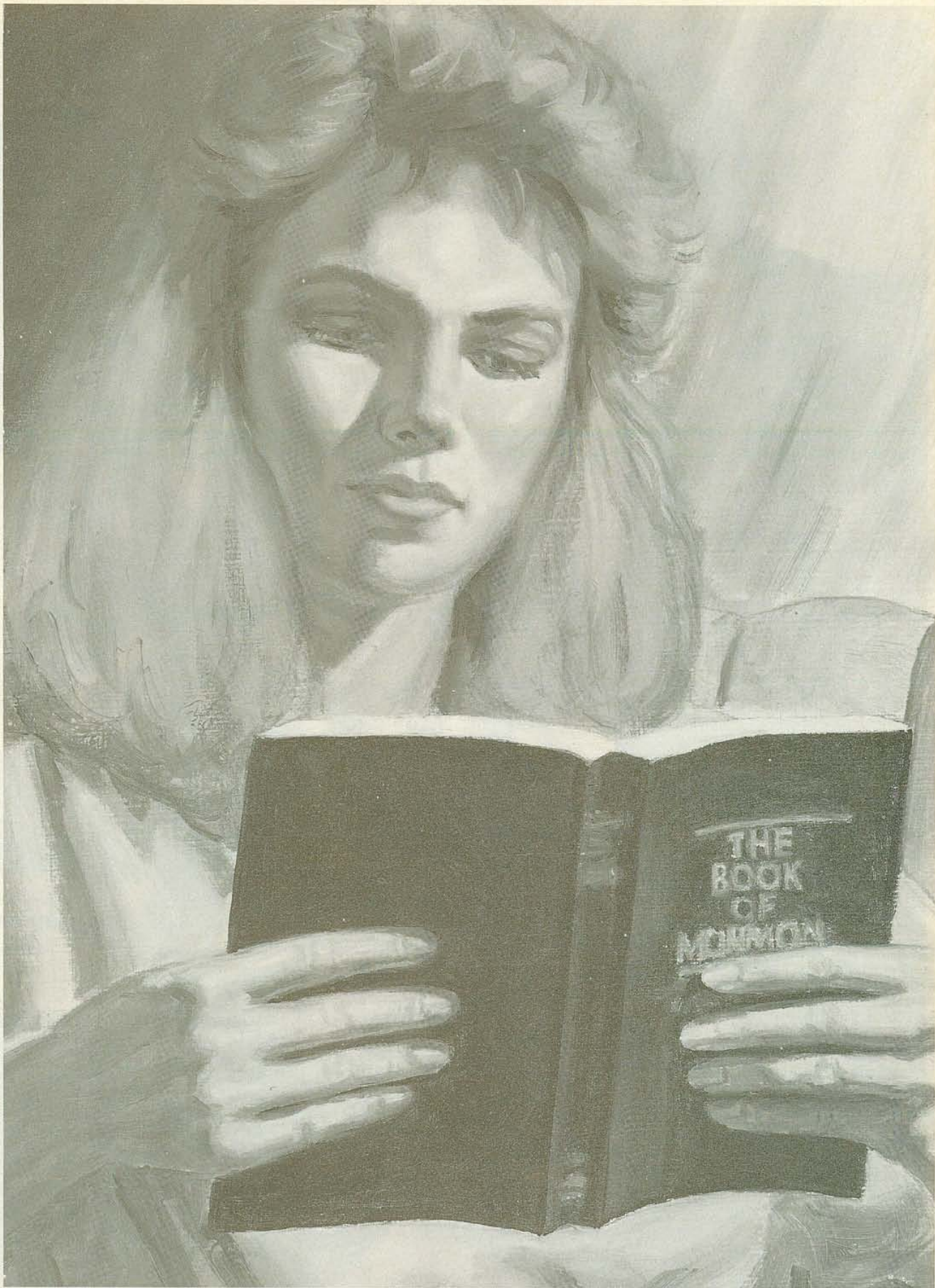
다시 읽어보아도 제가 찾던 특별한 구절이나 이야기는 없었지만, 물론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공부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지식이 조금씩 조금씩 더 확고하게 형성되어 갔습니다.

“성찬식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동안 제 영혼은 그토록 갈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안겨 주는 성령으로 감화되었으며, 성찬식이 끝난 후 ‘난 주님을 안다. 난 주님을 안다.’라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리 속을 맴돌았어요. 이 간증은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간증은 제가 그토록 구하던 바로 그것이었으며, 물론경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물론경이 가져다 준 변화
.....

“저는 구도자 시절에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고 곰팡내 나는 낡은 물론경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표지는 한번도 만져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뻣뻣했습니다.”라고 뉴욕 주 사우스 글렌즈 폴스의 자넷 스피어는 말한다. “그러나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차며 구원받은 듯한 평화로운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최초로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제 영혼은 영적인 양식에 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기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엘마서 13장 27절에 있는 ‘너희 죄를 씻어버리고 회개할 날을 미루지 말며’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은 마치 저를 향해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로버트 맥케이 그림, 존 루크 사진 촬영



저는 몰몬경에 대한 “확실한 간증”을 얻기 위해 자주 기도했지만 저와 제 동반자가 한 나이든 신사를 가르쳤던 바로 그날까지는 제가 원하던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모르게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제 마음에 ‘이 여행은 이제 끝났다.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될 때다.’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과 복음 토론 약속을 하였습니다.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토록 큰 기쁨을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침례받은 이후로 몰몬경은 저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어 왔으며, 저를 복돋아 주며, 제게 영감을 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제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내게 그것을 읽어 주지 않겠소?”

어느 토요일 아침, 애리조나 주의 캔들러에 사는 봄과 팔러 크레이머 부부는 뒷뜰에서 아들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깥의 따스한 햇살을 쬐고 앉아 있었다. 최근에 다시 활동 회원이 된 팔러는 몰몬경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비회원인 봄이 팔러에게 무엇을 읽고 있는냐고 물었다.

팔러는 “몰몬경이에요.”라고 대답했다.

봄은 태연하게 “내게 그것을 읽어 주지 않겠소?”라고 물었다.

팔러는 봄의 요청에 놀랐다. 결혼 생활 13년에 걸쳐 그녀가 남편에게 소리내어 책을 읽어 준 일은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팔러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니파이일서 1:1) 그녀는 그날 2시간 동안 몰몬경을 읽었으며, 그후에도 때때로 봄에게 몰몬경을 읽어 주었다.

“그날 아침에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팔러의 말이다. “남편과 저는 교회에 관해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 시작된 토론을 통해 남편은 교회에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알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도 남편에 대해 비판적이 되는 대신 남편이 저를 지지해 주는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최근에 저는 애리조나 성전에 가서 제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았는데, 남편은 그때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읽을 때 이 책이 종이 위에 써어진 글자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에 들어 있는

영을 통해 제가 사랑하는 이에게 그 메시지를 읽어 주도록 함으로써 제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두 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최근에 당한 여덟 살난 우리 아들의 죽음을 견뎌냈을까요?”라고 유타 주 드래퍼에 사는 릭 맥과이어는 말한다. “어느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성탄절기를 어떻게 견딜 것이며 또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어떻게 견디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를 위로해 주곤 했던 ‘오랜 친구’인 제 몰몬경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읽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책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으며, 제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짐을 친구의 어깨에 넘겨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지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아이다호 주 셸리에 사는 샘 위커가 모로나이서 10장 4절에 있는 다음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때였다.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그는 동반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인 기도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

“우리 욕실엔 지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잠옷 위에다 웃옷을 입었습니다.”라고 위커 장로는 말한다. “저는 아직도 그 딱딱하고 축축한 욕실 바닥에서 무릎꿇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오로지 작고 고요한 음성을 듣기 위해 귀기울였으며, 더 이상 무릎꿇고 있을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기도를 끝내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위커 장로는 몰몬경에 대한 “확실한 간증”을 얻기 위해 계속 기도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어느 날 그는 그의 동반자와 함께 나이가 지긋한 한 신사를

가르치고 있었다.

“제 동반자가 그 사람에게 물몬경에 대해 가르치고 있을 때 지극히 감미로운 영이 그 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워커 장로는 회상한다. “갑자기 제 동반자는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물몬경의 참됨을 간증할 차례였습니다. 제가 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지만 제게 증거해 주신 성신의 따스함만은 기억이 납니다. 그 구도자에게 물몬경이 참되다고 간증하자 성신은 제게 더욱 더 확실하게 임하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가 갈구하던 물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 소리지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저는 여섯 자녀 중 맏이였기 때문에 종종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어요.”라고 텍사스의 포트 위스에 사는 루스 앤 휠라이트는 말한다. “제겐 화를 내지 않고 동생들을 조용히 ‘통솔’하는 일이 어렵게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소리를 많이 질렀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조차 소리를 질렀죠. 부모님이나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전 소리지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누군가에게 소리치지 않으면 ‘자멸’해버릴 것 같은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루스 앤이 브리검 영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루스의 종교학과 교수는 학생들에게 매일 30분씩 경전을 읽도록 과제를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경전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독서를 좋아했으므로 그 과제를 쉽게 받아들였다.

“여름 방학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그 주일 동안 계속 경전을 읽었어요.”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엔 물몬경 읽기를 게을리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저는 동생들에게 다시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저는 즉시 30분간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그 여름 동안은 소리지르는 것으로 좌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이 줄어들었으며 우리 가족의 생활도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물몬경의 도움이 없었나면 저는 소리지르는 습관을 결코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저는 악몽에 시달려 왔어요.”

“저는 일 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밤에 깨어서 겁에 질려 다시 잠을 못 이루곤 했습니다. 결국은 잠자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죠.” 유타 주 사우스 조던에 사는 잔

사라의 말이다. “친구들이 도와 주려고 여러 가지 제언을 해 주었지만 그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잘 자도록 도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지만 밤마다 겁에 질려서 잠을 깨곤 했습니다. 혹시 제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무릎꿇고 기도드리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잠을 잘 자도록 도와 달라고 하는 대신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쭙었습니다. 그러자 잠들기 전에 경전을 읽으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몬경을 꺼내 엘마서 37장 37절을 읽었습니다.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네가 밤에 누울 때 주님과 함께 하면 잠자고 있을 동안 주께서 너를 살피 주실 것이며...’ 그날 밤부터 저는 경전을 읽는 시간을 아침에서 잠들기 직전으로 바꾸었습니다. 물몬경을 상고할 때 일어나는 그 평화로운 느낌으로 저는 잠을 잘 이룰 수 있었으며 그때부터 악몽은 끝났습니다.”

감사의 기도

“어느 날 저는 기도를 드리다가 영이 제게 물몬경을 기록했던 예언자들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캘리포니아주의 캐스틱에 사는 루스 로에스는 말한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영원히 끝나지 말았으면 싶을 만큼 충만한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겸손을 마음에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도 가깝게 느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리질렀던 적은 없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물몬경의 예언자들에 대해 감사를 드렸을 때 제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198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많은 회원들이 물몬경 읽기를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벤슨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여러분이 물몬경을 더욱 잘 이해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매일 물몬경을 읽고 그 교훈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자녀와 교회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축복을 부어 주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6쪽) □

..... 물문경을 공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가 받은 편지를 통해서 물문경을 공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
기도함

..... 중요한 원리를 기록함

“저는 물문경 읽기를 통해 어떤 구체적인 것을 얻고 싶었어요.”라고 유타 주, 프로보에 사는 린 포드는 말한다. “그래서 공책을 한 권 마련해서는 거기에다 제가 물문경에서 배운 중요한 원리들을 적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도 적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는 물문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버지니아 주, 래드포드에 사는 로버트 터너의 말이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읽는 것을 멈추고 평화로운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저는 거의 매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물문경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일지를 작성함

콜로라도 주 러브랜드에 사는 미셸 샌드버그는 “전 여러 해 동안 일지를 적어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날짜와 그 날 일어난 사건 등 세속적인 역사를 기록했던 니파이의 큰 판에 가까웠어요. 전 물문경에서 니파이가 판을 기록했던 것에 대해 읽고난 후 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이고 신성한 역사를 쓰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에게 대한 그분들의 사랑에 대해 간증하는 작은 판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 최소한 매일 15초를 씀

“상호부조회에서 한달 동안 매일 15초씩 물문경을 읽자는 목표가 주어졌을 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바빴지만 전 한결같이 15초씩 경전 읽기에 전념했습니다.”라고 유타주 샌디에 사는 캐롤 로랑즈는 말한다. “한달이 지나자 저는 물문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항상 15초 이상 읽게 되었습니다.”

..... 물문경을 다시 읽음

“전 저의 어두운 생활을 밝혀준 빛을 찾아 물문경을 세번째 읽던 중에 그 빛을 찾았습니다.”라고 아이다호 주, 렉스버그에 살고 있는 마리안 헤이즈는 말한다. “매일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물문경을 읽었는데 일 년 반이 걸렸어요. 하지만 다 읽었을 때 저는 평강의 왕자인 구세주의 빛을 발견했어요.” □



낙담에 빠져 있을 때 그 공책을 들여다 보고 격려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 영에 귀 기울임

“저는 물문경을 읽을 때 특정한 항목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대신 영에 귀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라고 펜실베이니아 주 칼리지빌의 오웨너 네이기는 말한다. “경전을 펴서 읽는 그 단순한 행위는 마치 주님께 ‘주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파이, 모사이야, 베냐민왕 및 그외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서도 위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지만 저는 ‘행간’에 숨겨져 있는, 저에게 힘이 되고 저를 인도하는 무진장한 보고를 찾아냈습니다.”

황근옥 자매

한국의 어린이들을 돌봄



위쪽: 고아원 소녀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음.

오른쪽: 1990년에 황 자매는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소녀들중 몇 명과 함께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수제트(수연) 마블, 지니 로비, 김은주 자매

서린 믹 샌더즈

목 도리를 두른 30명의 소녀들이 몇가지 되지 않는 소지품이 든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겁에 질린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황근옥 자매의 집으로 왔다. 그 집은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충분할 만큼 크지도 않았으며, 소녀들은 그들이 자랐던 비교적 안전한 고아원 밖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머니같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여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으며, 또한 황근옥 자매의 모범을 통해 황 자매가 다니는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였다.

1969년 11월의 바로 그날 밤부터 황자매가 일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자선 사업 중 한가지에 불과했던 텐더 애플즈 홈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봉사에 대한 꿈

봉사에 대한 황 자매의 꿈은 일제 치하 때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던 황근옥 자매는 낮에는 농사일을 하였으며, 밤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황 자매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했지만,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의 종속적인 위치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결국 응답받았다. 그녀는 제령과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일을 하여 학비도 낼 수 있었다. 황 자매는 열심히 공부하여





왼쪽: 합창 발표 후 어린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고 있다.
가장 왼쪽이 황자매.
오른쪽: 소녀들과 함께 있는
“할머니”는 텐더 애플즈 홈의
부원장이다.



우등생이 되었으며 졸업한 후 간호 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는 생활이 어려웠다. 가난이 만연하였으며 한국 백성들에게는 자국어 쓰거나 자신들의 문화 풍습을 따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황자매 자신도 일본 천황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였다. 그러한 박해를 당하자 황근옥 자매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고자 맹세하였다. 그 후 한국이 해방되자 그들은 한국을 황폐화시킨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을 돌보기로 다시 한번 맹세했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에 의해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를 황자매는 “모든 피조물, 심지어는 나무와 산들조차도 우리가 오랫동안 싸운 끝에 되찾은 자유를 보고 기뻐하는 것 같았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의 북쪽 땅을 장악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오려고 하였다. 황자매도 남북한 사이에 울타리가 세워지기 전에 떠나는 마지막 열차를 타고 남한으로 넘어왔다. 황자매는 그날 이후로 가족들을 보지 못하였다. 황자매는 그 후 피난민 수용소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보살폈다.

자비로운 봉사

“저는 이 엄숙한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라고 황자매는 말한다. 비록 세계 능력이나 기술이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욕구를 희생해야 하며 자신을 항상 영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자매는 수용소에서 자신이 전공한 간호 업무 대신 가르치는 일을 맡아했다. 그러나 6년 후인 1958년 11월에 그녀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목표를 이루려면 자신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녀에게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 교환 프로그램을 신청해보도록 권유했다. 학교로부터 허락이 왔다. 수용소에서 가르치면서 저축했던 돈과 졸업하고 갚기로 하고 빌린 돈으로 그녀는 학교에 등록하였다.

미국에 도착한 직후, 황근옥 자매는 여름 동안 버클리에 일하러 왔던 브리감 영 대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한국 학생을 만났다. 그들은 그녀에게 유타 주 프로보로 가도록 격려해 주었다. 1959년 가을에 브리감 영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황자매는 그곳의 산에 흠뻑 취했으며 말일성도들의 신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 다음 3년 동안 사회 사업에 대해 공부하였다. 1962년 6월에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녀는 선교사들을 만났으며 침례를 받았다.

1965년에 황자매는 송죽 고아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고아원에서 11살 때부터 14살까지 살았던 지니 로비는 “황자매님은 항상 종종걸음으로 안팎을 드나드셨으며, 언제나 미소를 띄고 계셨어요. 황자매님은 저희들 이름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또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상태에 관해 묻곤 하셨어요.”라고 회상한다.

희망의 노래



왼쪽 : 두명의 고아원 봉사자들과
함께한 고아원의 어린 원아들.
오른쪽 : 앞쪽의 어린이, 신디
닐슨 디슨은 현재 유타 주에 살고
있다.

황 자매가 원장이 된 지 2년이 채 못되었을 때 스탠 브란선이 한국에 왔다. 유타 주 블랜딩 토박이인 스탠은 서울에 있는 미육군 제8기지에 배속된 후 근무가 없는 날을 보람있는 일에 쓰고 싶어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 지역에 있는 고아원들에 대해 조사하자, 교회 회원들은 그에게 황 자매에게 가보라고 말해 주었다. 키가 193cm인 스탠은 황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품위있고 자신에 찬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녀가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황 자매님은 훌륭한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헌신적이고 상냥하며 예절바른 분이었습니다. 그분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스탠은 황 자매에게 자신이 기타를 칠 수 있으며 그 아이들에게 가서 노래들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말했다. “며칠 후 저는 득의양양해서 그들의 사기를 높여줄 준비를 하고 갔죠.”라고 스탠은 회상한다. “그러나 황 자매는 ‘브란선 형제님, 노래하시기 전에 애들이 형제님을 위해 준비한 것을 좀 들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으며, 아주 감동했습니다.’”

스탠은 그 소녀들로 합창단을 조직했으며 그들이 알고 있는 노래 외에 많은 노래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었는데 그 이유는 황 자매와 스탠이 그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스탠(소녀들은 그의 발이 컸기 때문에 큰 장화를 신은 아빠라고 불렀다.)과 그

소녀들은 미군 캠프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그해 가을에는 대디 빅 부츠와 송죽원 소녀들이라는 레코드 앨범을 취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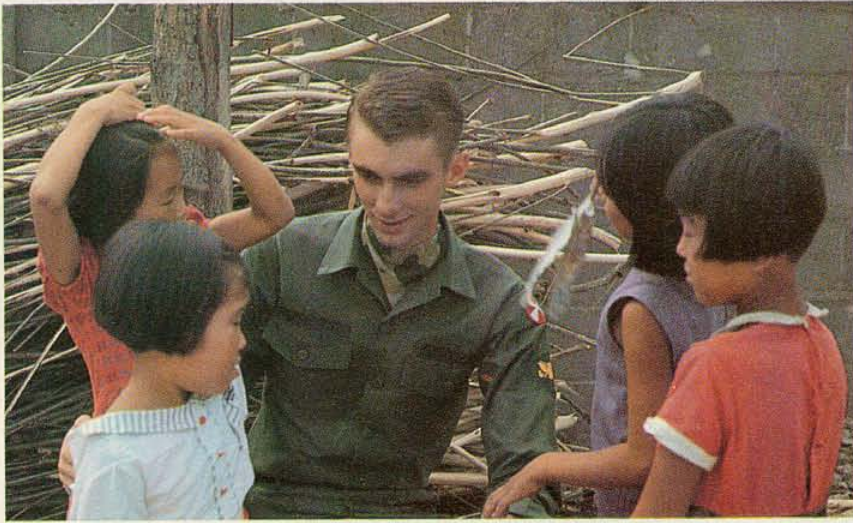
“그런 음악 활동이 그 소녀들을 크게 고무시켜 주었습니다.”라고 스탠은 회상한다. “소녀들은 자신들이 쓰레기같은 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났으며, 뿐만 아니라 널리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레코드 앨범을 취입하였으며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노래하였고 주한 미대사와 한국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황 자매는 합창단이 성공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녀는 소녀들의 활동을 통해 버는 돈으로 그 소녀들과 학비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싶어했다. 스탠은 그녀가 “사람들의 호의를 이끌어 내는 천부적인 소질”을 가졌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그 레코드가 나왔을 때 황 자매님은 세계 고등학교에서 그것을 알리는 파티를 열자고 했습니다. 황 자매님은 박정희 대통령과 윌리엄 제이 포터 주한 미대사와 연합군 원수인 찰스 에이치 본스틸 사령관을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오게 할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박대통령께 보낸 초대장에서는 포터 대사와 본스틸 사령관이 초대되었다고 했고 본스틸 사령관의 초대장에는 박대통령과 포터 대사가 초대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포터 대사의 초청장에는 그 두분이 초대되었다고 했죠.’ 그 파티엔 대사 부처와 사령관의 부인이 실제로 참석했어요. 박대통령은 서울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수석 보좌관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녀들은 스탠이 말일성도라는 사실을





왼쪽 : 스탠 브란선은 미군으로서 소녀들이 8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만들도록 도와주었다. 또 그들은 함께 산책도 많이 즐겼다.
오른쪽 : 1968년 장한 봉사자를 받았던 브란선 형제는 현재 유타 주에 살고 있으며 합창단원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다.

알게 되었다. 지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 가운데는 물몬에 대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애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애들은 물몬을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스탠이 이상스러워 보이는 점은 오로지 키가 무척 크다는 것 한 가지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는 그에게 ‘아저씨 참 좋은 분이예요. 아저씨가 물몬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왜 그렇지? 원장 선생님도 물몬이잖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니는 소녀들을 위해 통역을 해주고 있었는데 다른 소녀들이 스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달라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귀가 다 멍멍했다고 회상한다. 그 고아원은 다른 종교에서 후원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황 자매는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소녀들은 황 자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그 흥분된 반응을 본 스탠은 자신이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했음을 알았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소녀들은 황 자매에게 교회에 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 고아원을 후원해 주던 종교 단체에서 이를 알았을 때 관계자들은 황 자매에게 개종을 하든지 새로운 직장을 찾든지 택일하라고 말하었다.

텐더 애플즈 홈

황 자매가 자신의 고아원 즉, 텐더 애플즈 홈을 열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교회에 관심을 가졌던 소녀들은 그녀와 함께 가서 살도록 허락받았다.

그 고아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스탠은 돈을 모으고 소녀들을 위한 후견인을 찾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였다. 황 자매도 역시 재정적인 후원자들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그는 말한다. “황 자매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믿게 했지요. 그것은 황 자매님이 아주 진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라고 그는 전한다.

1974년에서 1977년까지 서울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던 유진 킬 형제는 황 자매의 끈기도 역시 한몫 했다고 믿는다. 그는 “황 자매님은 일단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보다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결코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 “황 자매님은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거기서 눈을 떼는 일이 없었습니다. 황 자매님이 그 일을 통해 어떤 반사 이익을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아마 사람들도 것처럼 열성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것처럼 힘들게 노력해서 옷과 돈과 음식이 생기면 그분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소녀들을 세상적으로 돕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영을 느낄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제시카 라이언 온은 1975년 1월부터 시작하여 3년간을 텐더 애플즈 홈에 있었다. 제시카는 6시에 소녀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회상한다. 황 자매는 소녀들이 기도하고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일어나서 불을 지피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회상한다. 월요일 저녁은 가정의 밤을 위해 따로 제외되었으며 황 자매는 소녀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버스 요금을 꼭 챙겨 주었다.

황 자매는 소녀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돕도록 가르쳤다. 킬 부장은 1974년에 한국에 왔을 때 조사를





통해 서울 시민의 10퍼센트 정도만이 교회의 이름을 알고 있음을 알았다. 그가 선교부장으로 있던 삼년 동안 그와 선교사들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황 자매의 허락을 얻어 팀 부장은 “뉴 호라이즌”이라는 가요 그룹을 만들었던 몇몇 장로에게 텐더 애플즈 합창단과 함께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음악 발표회를 열도록 준비하라고 명하였다.

그 그룹은 굉장한 인기를 모으게 되었다. “황 자매님은 줄곧 소녀들에게 그들은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너무 자만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쳤습니다.”라고 팀 부장은 회상한다. 삼년이 다 되어갈 무렵 70퍼센트 이상의 서울 시민들이 교회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황 자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가능한 한 많은 소녀들이 말일성도 가정에 입양되도록 주선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근 20년에 걸쳐 길렀던 84명의 어린이중 33명이 미국의 말일성도 가정에 입양되었고 그 중 12명이 성전에서 결혼하였으며 9명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또한 황 자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소녀들이 책임감을 배우며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었다. 그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등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도록 지명받았으며, 집안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요구받았다. 제시카는 소녀들 중 한 명이 고쳐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를 버렸을 때를 기억한다. 황 자매는 쓰레기통에서 그것을 발견하고서 그 소녀에게 낭비하지 않도록 엄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다음 가정의 밤 시간에 그녀는 모두에게 실과 바늘이 가득 들어있는 플라스틱 반질고리를 나눠주고 옷을 수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여전히 소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짐

지금은 소녀들이 성장해서 황 자매와 더이상 함께 살지 않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소녀들을 염려한다. 전 서울 성전장의 부인이었던 로즈마리 슬로버 자매는 2년 전에 남편 로버트와 함께 프로보로 돌아간다고 하였을 때 황 자매가 그들에게 유타에 살고 있는 소녀들, 특히 막 한국을 떠나 향수를 느끼고 있을 소녀들에 대해 좀 알아봐 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한다. 황 자매는 그 소녀들 중 여럿과 편지를 주고 받고 있으며, 또 초라한 가구가 놓인 그녀의 조그만 방(나머지 방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있다)에는 그들과 그들 가족의 사진으로 가득 매워져 있다.

그리고 그 소녀들도 그들의 “엄마”에 대해 비슷한 염려를 하고 있다. 1990년 10월에 그녀는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어 가는 어린이들을 바래다 주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텐더 애플즈 합창단에서 노래불렀던 많은 소녀들이 먼 곳에서 그녀를 가까이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팀 부장은 그녀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인사하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 각자가 도착할 때마다, 어떤 이들은 남편과 자녀를 데리고 오기도 했는데 황 자매는 마치 보내지 않겠다는 듯이 그들을 꼭 부둥켜안고 있었다.

“전 황 자매님이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팀 부장은 회상한다. “그분이 없었다면 그 소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 두서너 명도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죽었거나 거지가 되었을 겁니다. 황 자매님은 참으로 그 소녀들에게 현세적인

가장 왼쪽: “대디 빅 부츠”가 한국 근무를 마쳤을 때 모든 사람이 아쉬워 했다.

왼쪽: 미국의 인기 배우 아틀링크레터와 함께 찍은 합창단과 그들의 레코드 앨범 사진.

오른쪽: 1968년에 황 자매는 주한 미대사에게 합창단의 레코드 앨범과 기념패를 선물했다.



미국 사진

구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영적인 구원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만큼 큰 마음

그러나 황 자매의 비이기적인 성품은 그 소녀들을 넘어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친다. “자매님은 전 세계를 사랑할 만큼 큰 마음을 가지셨어요.”라고 지니는 웃으며 말한다. “자매님은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예요.” 지니는 28년 전에 헤어졌던 그녀의 오빠를 찾으러 3년 반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이것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는 일을 보았다. 오빠는 알콜 중독자였으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두 병들어 있었다. 그에게는 집도 돈도 직장도 없었으며 단지 누더기같은 옷들만 걸치고 있을 뿐이었다. 지니는 그를 정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줄 가족 한 명이 필요했으므로 지니는 황 자매를 불렀다. 지니는 황 자매에게 돈을 맡기고 가끔씩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오빠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황 자매는 즉석에서 승낙했으며, 전화를 거는 대신 매주 요양원을 찾아갔다. 당시 황 자매는 큰 유치원의 원장이었지만, 정기적으로 거의 하루를 다 바쳐 그를 위해 과자를 구워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서 거의 무반응에 가까운 사람 곁에 앉아 손도 잡아 주면서 같이 있어 주었다.

지니는 “황 자매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오빠를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셨는데 말이예요. 그러나 그분은 ‘난 매주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다려지는 걸’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이야기한다.

“만약 지금도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있다면 바로 황 자매님일거예요.”라고 스탠 브란선은 말한다. “저는 주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분을 들어올리셨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개척자 중의 한 명으로서, 황 자매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왔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지방부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1985년에 서울 성전이 문을 연 이래로 성전 의식 봉사자로 일해왔다. 전 성전장인 로버트 슬로버 형제는 그녀가 통상 일주일에 하루씩 하는 성전 봉사를 이틀씩 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전한다. 왜 그랬을까? “자매님은 그것이 주님의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다고 합니다.”라고 수제트 마블은 설명한다.

황 자매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모범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슬로버 자매는 “황 자매님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결코 얘기하지 않으며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방법으로 일만 할 뿐입니다.”라고 평한다.

지니는 “전 매일 자매님에 대해 생각하고 자매님의 모범을 제 생활에 적용해요. 자매님은 제게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라고 말한다. □

조 폴



영 시 브리시와 앤디슨 경은 폴의 휠체어를 사용하여 지체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커 트 장 로

영국에서 복음의 빛을 나눔

앤 시 브렛사

영국의 해안 도시인 블랙풀은 낮에는 그저 평범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어 그 유명한 불빛들이 밝혀지면 도시의 거리들은 화려한 모습을 드러낸다.

조 폴커트 장로도 처음보면 그저 평범한 영국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의 빛이 그의 삶을 바꿔 주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아름다운 복음으로 이끌어오도록 도와 주고 있다.

하나님께 빛짐

줄리언 소미스 폴커트 장로는 영국 리체스터 스테이크의 글렌필드 워드 출신이다. 영국에서 유일하게 휠체어를 탄 하반신 마비 선교사인 폴커트 장로가 현재의 위치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

선교 사업 초기에 폴커트 장로는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강한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전 ‘이런 상태로도 선교 사업을 나왔으니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나오지 않아도 되는 좋은 구실이 있었는데도 난 선교 사업을 하러 나온거야.’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라고 폴커트 장로는 말한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물론경 학습 시간에 그는 모사이아서 2장 21~24절을 읽게 되었다. 그는

장식등이 블랙풀의 어둠을 밝혀 주듯이 조 폴커트 장로의 신앙도 그 도시 사람들의 삶을 밝혀 준다.

웃으면서 말한다. “봉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해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빛진 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모두 행하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구절들을 읽고 저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난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단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라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조의 지침이었다. 옛날에는 폴커트 장로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척추에 응혈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은 백만 명 중 겨우 한 사람 정도로 발생할까 말까 하는 희귀한 병이었다. 보통으로 그같은 현상은 중년기에 일어나며 뇌에 손상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조는 죽지 않았으며, 하반신을 못쓰게 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정상이다.

작은 입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명랑해졌다. 신권의 축복에 의지하면서 그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을 만큼 간증을 쌓아 왔다.

변신

조는 과거를 회상하며 그의 인생의 고비가 되었던 그 순간을 선명하게 떠올린다. 그는 “영이 전해주는 느낌을 통해 저는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될 때, 이미 그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엄숙하게 말할 때 저는 그분이 ‘유감이지만 가망이 없습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거요.’라고 말할 때, 저는 마치 구원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수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새롭게 행하고 적응하며 그러한 것을 배우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조는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을 키워 나갔다. 힘든 상황에 부딪칠 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는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라는 말이다.

조는 점차 자신의 생활에 적응해 갔으며 점점 더 독립할 수 있게 되어 갔다.

또한 그의 간증도 점점 강해져갔다. 조는 교회에서 커왔지만 일찍부터 활동이 저조한 회원으로 지내왔다. 그는 옹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후회할 만한 일들을 했다. 선교사들의 영향과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그는 서서히 교회로 돌아왔다.

“교회가 참된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결심한 것은 바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죠.”라고 조는 말한다. “입원 기간이 여러



달로 길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금식 기도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그의 척추가 휘기 시작하여 갈비뼈를 제 자리에다 맞출 필요가 있었다.)

첫번째 금식이 끝났을 때 에일즈버리 워드 감독이 그를 방문하러 와서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의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삼림 지대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조는 회상한다. “우리가 그곳을 천천히 통과할 때 저는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 아름다운 숲 전체를 감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이 교회가 구세주의 교회라는 느낌이 너무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 사업을 하러 나와야 했습니다.”

그 후 조의 간증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

봉사하고자 하는 결심

후에 워드에서 선교 사업에 대해 반 토론을 함께 할 때부터 봉사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명백해졌다. 그가 소외되거나 난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교사는 “물론 조는 면제돼요. 휠체어를 타고 선교 사업을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니까요.”라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제게 동기를 불어 넣어 주었죠.”라고 폴커트 장로는 말한다. “저는 즉시, ‘아, 아네요. 할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곧 조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결심을 확증해 주었다. 그 축복에는 그가 봉사하며 전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조가 영국 맨체스터 선교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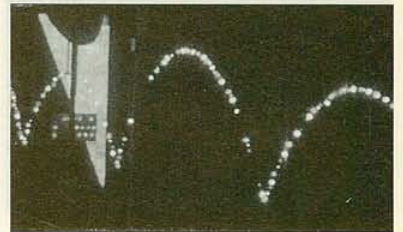
떠나기 전, 삶에 대한 그의 새로운 적극적인 자세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는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벌이는 전국적인 규모의 스포츠 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하여 우승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지방 의회 사무실에서 견습생으로 일할 것을 지원하였다. 의회 사무실은 그가 두 해 동안 떠나 있게 되어 그 동안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도 그를 채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그의 설명을 듣고 그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특별히 일자리를 비워 두겠다고 약속했다.

불가능은 없음

조에게 있어 이러한 축복들은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보상해 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아마 2년 동안 구두를 한 켤레만 가지고 선교 사업을 한 선교사는 저 한사람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신발은 새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농담을 한다.

그러나 그대신 휠체어 타이어를 여러 번 갈아야 하는 것같은 불리한 점도 다소 있다. 선교 사업을 하러 나오기 전에 조는 가볍고 가는 타이어의 스포츠형 휠체어를 사기 위해 돈을 저축했다. 의자가 작을수록 움직이는 것이 더 쉬우며 바퀴를 움직이는 기술도 향상되고 속도도 더 낼 수 있으며, 놀랄만큼 높이 튀어오를 수도 있다.

그는 “가능한 일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는 것이라면 단지 시간이



왼쪽 : 비가 쏟아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폴커트 장로와 그의 동반자, 딘 빌 장로는 영국의 주요 해안 유흥지인 블랙풀의 산책로를 따라 들어오는 바닷바람을 즐기고 있다.

위 : 구도자를 가르치거나 찾거나 간에 폴커트 장로는 “전 단지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명랑하게 말한다.



위: 폴커트 장로는 구도자인 케빈 스미스와 공통적인 유대를 찾았다. 오른쪽: 폴커트 장로와 빌 장로가 숙소에서 집안 일을 하고 있다.

좀 오래 걸릴 뿐이죠.”라고 말한다.

폴커트 장로의 동반자인 영국 웨스턴 슈퍼 메어 출신의 딘 빌 장로는 동반자의 그러한 태도에 감사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폴커트 장로와 함께 일한 후부터 저는 자신이 받는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별로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심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종종 신앙을 지닌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폴커트 장로는 “인생이 쉬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시험과 마주치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가 현명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면 결국은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만기 어려운 만남

주님께 봉사하는 동안 종종 어떤 일이 끝나기도 전에 축복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조는 선교 사업 도중 그러한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다. 케빈 스미스를 만났던 날도 그런 경우였다.

케빈은 그의 사무실에 있는 어느 젊은 말일성도 여성의 훌륭한 모범을 통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블랙폴 와드에 몰몬경 한 권을 요청하였다. 조와 그의 동반자가 그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기로 자원하였다.

“저희 집에 선교사들이 오기 전까지는 교회에 대해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라고 케빈은 말한다. 그는 지난 16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한 상태로 지내왔다. “전 몰몬 장로라고 하면 판에 박힌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막 대학을 떠난 키크고

건강한 미국 청년들이 맵시있는 양복을 입고 치약 광고에서처럼 웃고 있는 그런 이미지 말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보였다면 전 아마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겸손하고 다정한 사람들이 서 있었으며 그 중 한 사람은 놀랍게도 저와 같이 휠체어를 타고 있잖겠습니까?”

“케빈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예요.”라고 폴커트 장로는 말한다. 그는 자신의 구도자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가 그 집에 처음 가기 전부터 제게는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폴커트 장로와 케빈은 만난 그 순간부터 좋은 친구가 되었으며, 조는 그들이 첫번째 토론을 한 후 오래지 않아 케빈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빛을 나눔

조가 보여주는 모범의 힘은 영원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활동이 저조했던 회원들이 그의 모범 때문에 교회로 돌아왔으며, 그는 기꺼이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눠 왔다. 그리고 그의 선교부장은 그의 “훌륭하고 명량한 성격”을 무척 좋아했다.

블랙폴의 불빛이 어둠을 밝혀주는 것처럼 조 폴커트 장로의 밝은 신앙도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장애를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의 간증에 빛을 발한다. □



ELDER FOLKETT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이해의 고향

과다루페온티베로스 엘티스

회원의 소개로 저는 동반자와 함께 한 젊은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가 몇차례 현관 문을 두드린 후에야 그 젊은 어머니는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나서 한 이웃 사람이 우리에게 그녀를 소개해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소개를 듣고 나서 우리 앞에 앉아 첫번째 선교사 토론을 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옆에 열 살된 딸이 우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는 우리에게 시선을 주려 하지도 않고 그 대신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매우 집중해서 토론을 듣느라 그 큰 소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동반자는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몇 분 후에 소녀는 다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했습니다. 이제는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어머니의 말을 분명하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딸을 나무라지도 않고 여전히 계속 우리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소녀의 행동과 또 그런 행동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어머니로 인하여 꽤 불쾌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더욱 불쾌하게 만든 것은 그 소녀가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침착한 듯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내내 “저런 버릇없는 아이 같으니라고!

왜 저 아이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라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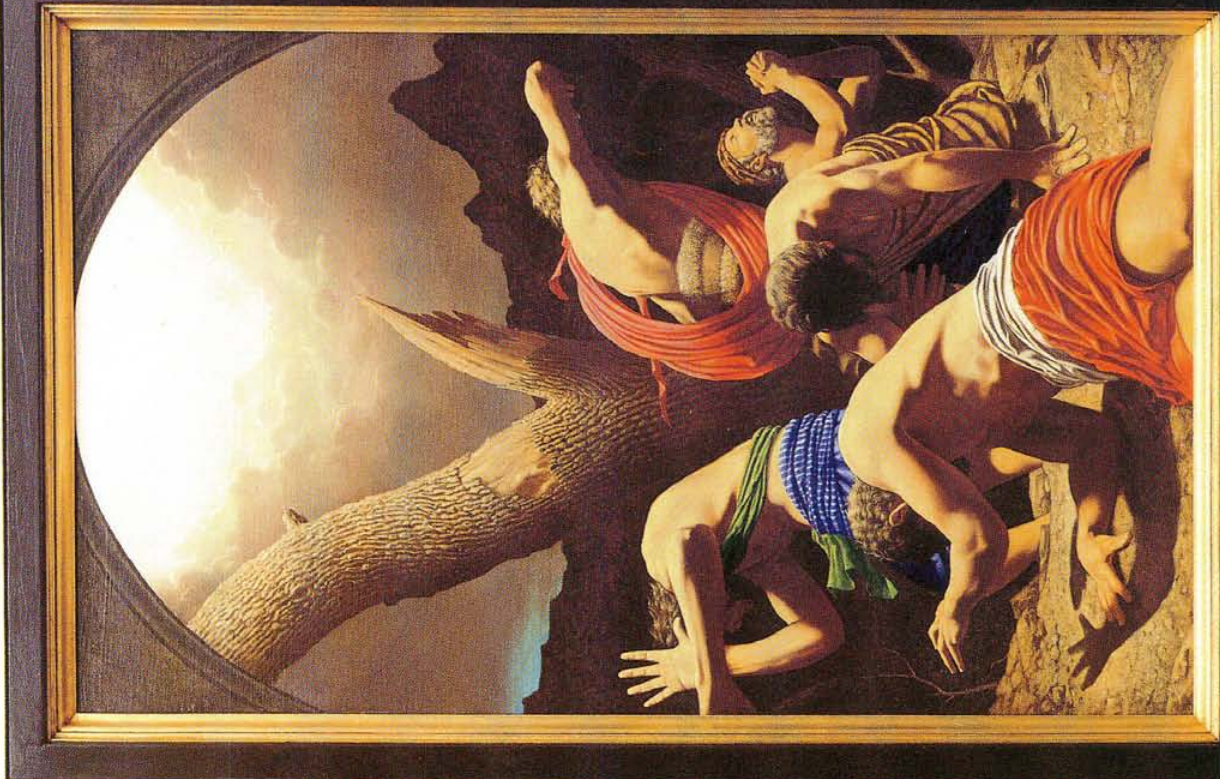
제가 토론과는 동떨어진 생각 속에 있을 때 그 소녀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그 소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소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소녀가 지능 장애를 가진 몽고증 환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생각이 깊은 어머니인가! 아마도 딸의 건강 때문에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우리 토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사 토론의 후반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기도를 하고 다음 약속 날짜를 정하고 잠시 동안 그 여인과 담소하였습니다. 이야기 하는 가운데 저는 그 어머니가 청각 장애자이며 독순술을 통해 토론을 이해하였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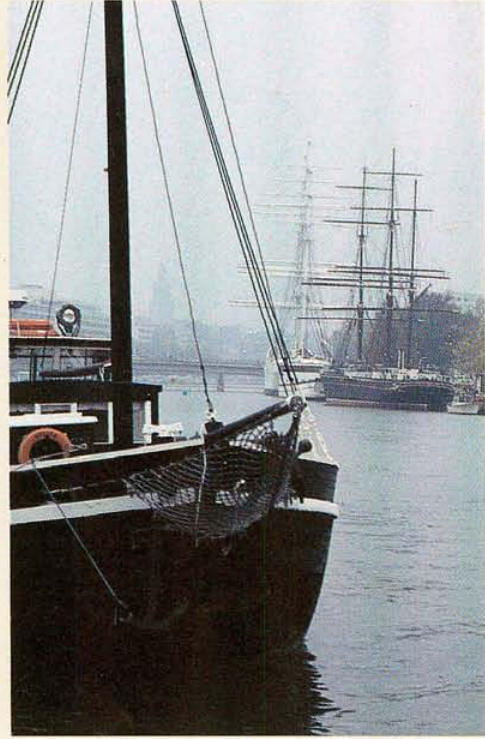
그 집을 떠나면서 저는 그 어머니와 딸을 잘못 판단한 것에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그 텔레비전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시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감정을 들어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던 후로 저는 항상 생각을 억제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



엘마 이세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개심 (엘마서 36 : 6, 24), 데이비드 린 그림

교회 역사 예술 박물관이 주관한 제2회 국제 예술 경연 대회 수상작인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유화는 엘마 이세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개심을 보여주고 있다. 맨 왼쪽의 그림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모사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그린 것이고, 가운데의 그림은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회개를 외치는 것을 그린 것이며 오른쪽의 그림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그린 것이다.



함 께 노래하고 있는 멧사타티와 사리아 카르후넨은 핀란드의
성도들이 얼마나 화합을 잘 이루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비록 핀란드에서는 교회가 세계 다른 몇몇 지역에서와 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헌신적인 사람들로 잘 알려진 회원들의
유대감이나 우정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8쪽 “노래를 들으라”, 12쪽
“수오미 핀란드, 발트해의 등불” 참조)